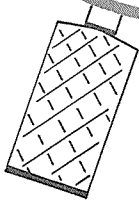


# 밤의 천국 서독의 도시



김 윤 기

교통수단의 발달과 해외여행 자유화 물결을 타고, 이제 세계의 나라들이 우리 생활과 성큼 가까워진 듯하다.

그러나 단순한 여행보다는 좀더 의미있고 경제적인 여행을 위해서는 여행지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本誌에서는 세계 각국의 문화적 특성과 여행사의 주의점을 1년간 연재하여, 독자들의 해외여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편집자註〉

프랑크푸르트를 서독의 수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서독의 수도는 본(Bonn)이지, 프랑크푸르트가 아니다. 프랑크푸르트는 헤센주(州)의 수도도 아니다. 헤센주의 수도는 비스바덴이다.

프랑크푸르트는 큰 도시도 아니다. 인구는 고작 70만명이다. 우리나라 중소도시만한 크기다.

그런데 프랑크푸르트는 왜 그렇게 유명하게 되었는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서독의 국력 때문이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가면 대번 알 수 있다. 엄청난 물동량과 출입국자수, 유럽서는 단연 최고이고, 세계적으로도 3대공항에 끼인다.

서독은 쉅스천국이다. 공창(公娼)이 인정되고 있는 몇개 안되는 나라중 하나다.

프랑크푸르트의 메인스트리트는 중앙역에서부터 시작한다. 역전 정면에서 곧게 뚫

유명한 카이저 대로. 피쇼를 볼 수 있는 Show Center 간판이 보인다.

린 길이 카이저大路(Kaiserstr.)다. 이 카이저대로를 똑바로 가다가보면 옆으로 가로지르는 가로공원이 나오고, 가로공원 안에 피테동상이 서 있다.

가로공원을 통과, 똑바로 더 가면 피테광장이다. 피테광장 부근에 피테의 생가(生家)가 있고, 이 주변이 백화점과 카페 등이 집결된 중심상가지대다.

카이저대로와 함께 역전광장에서 평행으로 뻗어 나간 2개의 대로가 양쪽에 또 있다. 오른쪽이 문헨路, 왼쪽이 타우누스路. 이 3개도로는 낮에는 차들이 지나다니는 평범한 도로지만, 밤만되면 요란한 요지경의 세계로 변한다. 한국사람들은 이 일대를 「마굿간」이라고 부르고 있다. 아무때나 백마를 탈 수 있는 곳이라서 붙인 이름이었던가.

우선 피쇼(Peep Show)부터 보자. 가운데 벙글벙글 도는 회전무대가 있고, 알몸의 미녀들이 누드쇼를 벌인다.

이 쇼를 보려면 전화박스처럼 생긴 방에 들어가서 동전 1DM(마크)을 넣어야 한다. 동전을 넣으면 자동으로 들창이 열리며 무대가 보인다.(마크는 약 384원)

무대에는 백인미녀, 흑인미녀, 동양미녀 등 세계각지에서 모인 미녀들이 밝은 조명 아래서 정말 별난 1인쇼를 벌인다.

무대는 바로 들창앞이라 손을 뻗으면 닿을만한 거리다. 그러나 어찌나 빨리 들창이 닫히는지 계속 동전을 넣어야 한다. 3마크 크로 구경할 수 있는 시간은 100초. 충분한 구경을 하자면 2~30마크가 금새 동이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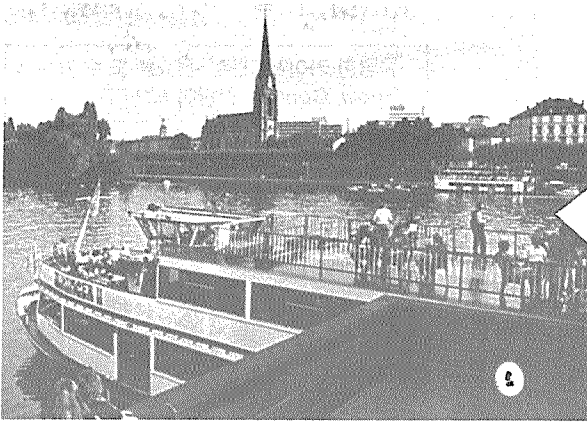


눈요기만으로 부족할 때는 「크레이지 섹스(Crazy Sex)」를 찾으면 된다. 크레이지섹스는 공개된 공장시장이자. 아무나 들어 갈 수 있고, 구경만하고 그냥 나와도 되며, 폭력도 없고 강요도 없다.

넓은 홀안에 아가씨들은 높은 의자를 놓고 올라 앉아있다. 삼각팬티와 브래지어를 한 것외엔 알몸 그대로다. 나이는 갓스를 될까말까한 에띠고 예쁜 아가씨들이다. 가느다란 미소를 띄고 있었으나 엉덩이나 다리에 손을 대면 신경질을 낸다.

홀의 가장자리엔 방들이 주욱 붙어 있다.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으면 함께 방으로 들어가면 된다. 완코스요금(15분간)은 50DM, 30분이며 100DM이다.

그러나 브래지어를 클르게 한다던가, 스타킹을 벗게하면 요금은 달라진다. 어느 경우든, 나올때는 20DM정도의 팁을 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 아가씨들은 철저하게 위생점검을 하기 때문에 병같은 것은 없다는 것이 이곳의 설명이다.



아마이 강변 선착장에서 본 프랑크푸르트 시가지

「에로스센터(Eros Center)」는 홀이 없고 그대신 복도에 아가씨들이 나와 손님을 유혹한다. 붉은빛 조명이 되어있는 방안에는 침대가 있다.

값은 약간 싸고 서어비스도 조금 낫지만(신경질도 덜 부리고), 나이들이 조금 많은 편이고 불결감이 있다.

크레이지섹스나 에로스센터는 속전속결주의로 부대비용이 안들고 시간절약이 되는 잇점은 있으나, 무드가 없다.

그래서 점잖은 사람들은 「사우나」를 찾는다. 사우나는 우선 입장료(50DM)를 내고 들어가는 것부터가 다르다. 일단 들어가면 아가씨나 손님이나 모두 알몸이다. 알몸으로 술도 마시고 목욕도 한다.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으면 침실(맛사지싸롱)로 함께 갈수도 있다. 이때는 200DM 정도를 따로 내어야 한다.

사우나에선 시간의 제약없이 서어비스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매우 심도있는 서어비스를 해 준다.

독일의 빠이는 술만 마시는 곳과 섹스서어비스를 받을 수 있는 빠이가 있다.

섹스빠이는 좀 음침하고 홀 가장자리에 룸들이 있는 것이 다르다. 그런데 한가지 신기한 것은 아가씨들은 부르기전엔 손님 테이블에 함부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 좀 거만한 것처럼도 보이지만, 예절을 지키는 것 같아 기분 나쁘지는 않다.

아가씨와 술 한잔씩 마시고 기분이 나뉘는 룸으로 들어갈수 있다. 룸에 들어갈때는 최소 100DM 이상 좌지를 해야한다.

카이저대로를 가로지르는 모젤街 주변엔 「NON STOP SHOW」라는 간판이 여러 곳 보인다. 팝쇼와 다른 것은 유리창이 아닌 무대 바로 앞에서 실물쇼를 볼 수 있다는 것.

스트립퍼들은 선정적인 몸짓으로 손님을 찾아다니며 손님의 코앞에서 하체의 중요한 부분을 보게 해준다. 회중전등으로 비추어 볼수도 있고, 손으로 만져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때는 팁(10DM 정도)을 꼭 주는 것이 원칙이다.

함부르크는 프랑크푸르트보다 더 노골적이고 개방적이다.

지하철 「쾰른파울리」역에서 서쪽으로 뻗

은 「리퍼반」일대가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환락가다.

함부르크의 명물은 텔레폰빠아. 테이블마다 전화가 있어 자리에 앉으면 금세 아가씨로부터 전화가 걸려온다. 수화기속의 미녀는 번호와 이름을 알려준다. 둘러보면 전화를 건 아가씨는 먼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눈이 마주치면 빙긋 웃어준다. 마음에 들면 OK! 한마디로 데이트는 쉽게 성립된다. 아가씨와의 데이트는 되도록 간단히 끝내는 것이 경제적이다. 값싼 콜라나 맥주 한잔씩 마시고, 『비필?(얼마?)』 값부터 묻는다. 요구액은 1시간에 최소 100DM 이상. 2시간이면 150DM으로 올라간다. 흥정이 끝나면 아가씨는 웨이터를 불러 샵페인

을 시킨다.(1병에 10DM정도). 자리값이다. 아가씨는 자기차로 자기 아파트까지 데리고 간다.

섹스맨션도 있다. 헬베르트街에 이런 집들이 있다. 넓은 홀안에 상품을 진열하듯 아가씨들이 줄지어 있고, 요금은 1시간에 60DM. 리퍼반의 서쪽끝에 있는 「에로스센터」와 「나무르센터」는 비교적 고급이며, 젊고 예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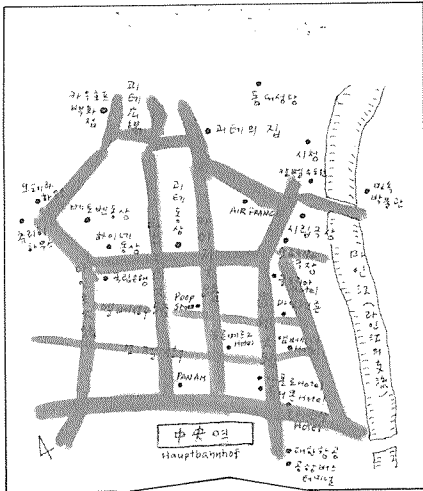
요지경 사우나도 많다. 스트립쇼를 보여주는 사우나도 있다. 무대에선 논스톱쇼가 벌어지고, 독방에선 직접 섹스서비스도 한다. 한개임요금 100DM이상.

함부르크 거리에선 아가씨들이 차를 몰고 다니며 남성헌팅을 한다. 마치 영화배우 타입의 멋쟁이 아가씨들도 섞여 있다. 이 아가씨들은 값이 비싸다. 200DM이상이다. 카섹스에도 응해준다. 요금은 50DM정도로 OK.

환락의 도시 함부르크에는 재미있는 관광버스가 있다. 환락지대만 보여주는 관광버스다. 밤8시에 출발한다. 출발 정거장은 중앙역전광장. 리퍼반의 빼어홀, 나이트클럽에 들려 맥주도 한잔씩 주고, 유명한 비어홀 「질러탈(Zillertal)」, 스트립쇼를 볼수 있는 사우나 「살람보(Salambo)」, 텔레폰빠아 「카페·멜러(Cafe Mehrer)」등을 구경시켜준다. 요금은 60DM.

〈위의 요금들은 86년도의 것이며, 현재는 다소 변경되었을 것임〉

〈필자 = 해의의학 교류회장 · 최신 여행 정보 발행인〉



프랑크푸르트 역전 부근